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5(화) / 총 2매(본문 2, 붙임 1)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성호, 사무관 이진우, 주무관 남혜숙 ·☎ (044) 201-3517, 3522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·과장 이상헌, 사무관 이성훈, 주무관 이덕원 ·☎ (044) 201-3527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금융 조달 지원, 고위급 건설외교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- 최근 3개년 해외수주액 비교 시 '18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연초(2월 기준)에 수주가 집중되어 금년 연초 수주가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.

*'16~'17년의 경우 연초 수주실적은 낮았으나 연말 수주액은 유사한 수준

< 해외건설 수주 현황 >

구분	'16	'17	'18	'19
연간(억불) 건수	282 (607건)	290 (624건)	321 (662건)	
1월~2월(억불) 건수	50 (107건)	29 (116건)	70 (112건)	37 (93건)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조달 등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1단계 조성*을 조속히 완료하여 해외 진출 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,
* 총 1.5조 원 규모로 공공:민간 매칭 방식으로 조성
 -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인프라 공기업과 건설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공동진출 확대 및 정상 순방시 고위급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세계일보, 3.5(화)) >

- 연초부터 반 토막난 수주액... 최대시장 중동서도 맥 못 뉘었다.
- 10억불 이상 대형 수주 0건... 산업설비 84% 급감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우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 배경

- ❶ 해외 인프라사업 규모는 매년 약 500조원 수준('17년 468조원)
- ❷ 그러나, 해외 인프라사업은 대규모 자금소요, 투자회수의 장기화 등으로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자금조성 미흡
 - 특히, 리스크가 높은 국가 사업의 경우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
→ 수주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리스크 분담 필요
- ❸ 이미 대규모 시장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펀드 조성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총 6조원 규모의 「글로벌 플랜트·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가동
 - 사업 위험도(중위험, 고위험, 초고위험)에 따라 펀드,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 - ①글로벌 플랜트·스마트시티 펀드 신설(중위험, 3조원),
②정책금융(고위험, 2조원), ③수은 특별계정(초고위험, 1조원) 활용
 -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 부여
(예: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면책)

